

그래프로 보는 세계 농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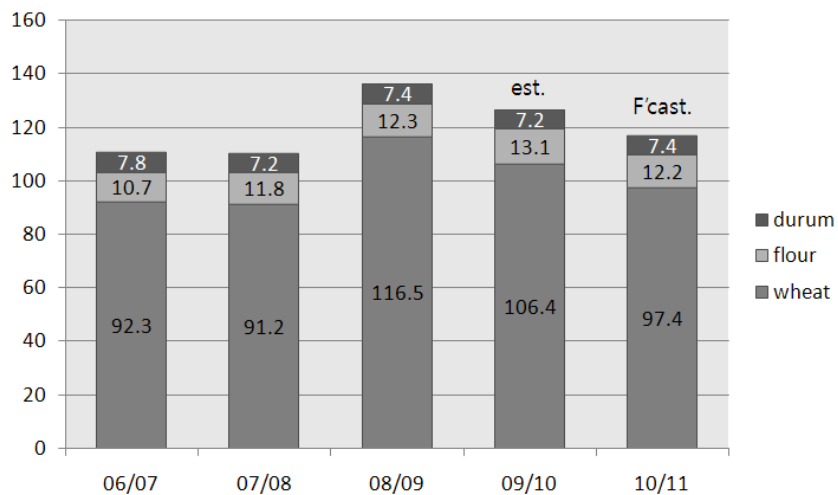
2010년 8월 초 러시아의 곡물수출금지 발표로 인해 곡물가격이 폭등하면서, 애그플레이션의 우려가 제기되었다. 러시아 푸틴 총리는 지난 8월 5일 오후 15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곡물수출을 금지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9일에는 곡물수출금지 조치가 2010년 이후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곡물수출금지 조치는 사상 최악의 러시아 산불 및 가뭄으로 인해 올해 곡물 생산량이 급감할 것으로 전망되며, 내년도 수확을 위한 파종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올해 밀 생산량이 기존 생산 전망치였던 6,500만 톤에서 하향 조정된 6,000만 톤에 그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SovEcon의 농업 부문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만약 곡물수출금지 기간이 올해를 넘기게 될 경우 2010/11 밀 수출량은 당초 1천만-1천100만 톤보다 훨씬 낮은 300만 톤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또한 이번 곡물수출금지 조치가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가뭄으로 인한 보리 생산량 감소도 사료용 밀 수요 증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달에는 러시아의 곡물수출금지조치와 관련하여 국제 밀 가격 및 수급동향에 대해 표와 그래프를 통해 살펴보았다. 자료는 CBOT, International Grain Council 홈페이지 등을 참조하였다.

그림 1 최근 5년간 국제 밀 교역량(종류별)

단위: 백만 톤



자료: International Grain Council.

지난 5년간 국제 밀 교역량 추세를 살펴보면, 2008년 곡물 파동이 발생한 이후로 곡물 생산이 급증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전세계적인 애그플레이션 발생으로 곡물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농가에서 재배면적을 증가시킨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그러나 그 후로 지난 2년간 전세계 곡물 재고가 최대치에 이르고, 2010년 들어 기상이변과 산불 등 재해로 인해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교역량 역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종류별로는 Durum과 Flour는 큰 변화가 없거나 소폭 상승하는 추세임에 비해, Wheat의 교역량 변화가 전체 밀 교역량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2010년 6월 이후 밀 선물가격 변동 추이



2010년 하반기 밀 선물가격은 6월 부셸당 450달러 수준이었으나, 올해 작황이 좋지 않아 전세계 생산량이 저조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7월 이후 상승세가 이어졌다. 8월 러시아 푸틴 총리의 발언 이후로는 더욱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며 부셸당 800달러 수준으로 전세계적인 애그플레이션 위기를 맞이하였으나, 현재는 670달러 수준으로 소폭 하락한 상태이다.

지난 2008년 곡물 위기 때와는 달리, 미국과 호주 등 전세계 곡물 생산 및 재고량이 충분히 많아 단기적인 충격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올해 밀 작황이 좋지 않고 러시아 등의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세계 10위의 밀 순수입국인 우리나라로서는 곡물 확보 등 식량안보에 위협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향후 세계 곡물시장 추이를 면밀히 살펴 안정적 식량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